

“책쓰기와 책읽기는 둘이 아니다”

꾸준한 연구와 창작활동 보인 올해의 多産家들

한평생 한편의 저서도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 자신의 책을 갖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명예나 부를 떠나서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저작자도 많다. 더욱이 이들의 활동이 한평생 한편의 저작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연구와 창작과정 속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 권의 책을 독자들 앞에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루 원고지 20매만 말하자면 내 건강의 리듬감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에게 부적합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70매를 쓸 때는 사흘을 앓고, 또 하루 3매 밖에 쓰지 못할 때도 사흘을 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매의 분량이 나의 리듬감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중국기행 산문집 「설렘과 황홀의 순간」(솔), 문학사가 조운제와 비평가 최재서 연구집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2」(아세아문화사), 신경숙·김소진·함정임 등 30대 작가들의 신작과 80년대 학생운동권출신 작가들의 후일담문학 등 최근의 문학현장을 정리한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서울대출판부)을 지난 6월경 한꺼번에 내놓은 김윤식 교수의 글쓰기 리듬이다.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글밭을 일구고 있는 김윤식 교수는 이외에도 「현대문학과 대화」(서울대출판부), 「소설과 현장비평」(새미)을 내보 총 다섯권의 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뿐이 아니다. 월간·계간으로 나오는 각종 문예지에 기고한 글을 다 모아놓으면 또 몇권의 훌륭한 저작물이 나올지도 모

끊임없이 계속되는 연구와 창작과정

속에서 올해도 여러 권의 책을 독자들

앞에 내보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저작자들이 많다. 지금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작물에

올해 또 몇 권의 실적을 보낸

이들은, 한결같이 글쓰기보다도

책읽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셋이

아니라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를 일이다.

연구분야 깊고 넓게 다듬는 저작물

올해 자신의 분야를 깊고 넓게 다듬으며 많은 책을 남긴 저작자는 김윤식 교수 외에도 많다. 2년여 전부터 준비해온 내권의 저서를 탐구당에서 동시에, 펴내 후학들로부터 ‘역사인물은 인물’이라는 칭송을 한몸에 받은 전서강대 사학과 차하순 교수도 그런 경우다.

지난 8월 31일 정년퇴임을 맞아 차 교수는, 근대사상사와 80년대 이후 관심의 대상이었던 역사사상에 대한 글을 모아 「서양 근대사상사 연구」와 「현대의 역사사상」 두 권으로 묶고, 6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발표했던 수상(隨想)이나 시평(時評)들을 「벽돌이 하나씩 쌓일 때」 「글씨, 어떨까요」에 담았다. 차 교수는 자신이 쓴 「서양사총론」을

또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이화씨(역사문제연구소장)도 저서가 많기로 소문나 있다. 한길사에서 나온 「겨레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 「우리들의 한문교실」(박은숙 공저) 「조선 후기 정치사상과 사회변동」을 비롯해서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한겨레),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여강)을 연달아 상재했다. 하지만 이이화씨는 이러한 책들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글을 쓰는 사람이 책을 내는 게 자량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아 출간하려던 책을 내지 못해 조금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사실 이이화씨는 「동학농민전쟁사」에 대한 기획을 10년 전부터 해왔다. 원고지 1천장 정도의 분량으로 「동학」에 대한 연구저서가 될 이 책의 내용은 현재 「역사비평」에 연재중이다.

사회학자이면서 역사학적 지식도 해박한 신용하 교수(서울대 사회학)도 책 많이 펴내기에는 빠지지 않는다. 올해도 「한국근대의 선구자와 민족운동」(집문당), 「한국 근대사회의 구조와 변동」(일지사), 「세계체제 변동과 현대한국」(집문당), 「한국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과제」(삼성정신문화연구소)를 상재한 신용하 교수는 지금까지 22종의 책을 펴냈다.

한편 이현희 교수(성신여대 사학)도 많은 논문을 쓰고 이를 책으로 엮었다. 「동학혁명사론」(대광서림)을 비롯해서 「유일한의 독립운동연구」 「송당 임영신의 애국운동연구」(동방도서)를 펴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근대인물사」(새문나)를 내놓았다.

문단생활 36년을 지낸 고은씨 역시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책을 독자들에게 선사했다. 딱히 시인이라거나 소설가로 이름붙일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글을 쓰고 있는 고은씨는 올해 「백두산」(전7권, 창작과비평사)을 다 끝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고은씨가 7년간에 걸쳐 쓴 이 시집은 총 5만2천여행에 달하는 서사시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전10권으로 기획된 자전적 소설 「나, 高銀」의 1~3권(민음사)을 펴내고, 불교산문집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행복)를 더 보냈다.

5만2천여행의 「백두산」 완간한 고은씨

68년 「사상계」에 단막희곡 ‘인간이라면 누구냐’를 발표하면서 등단한 유순하씨는 적어도 88년 첫 장편소설 「생성」을 발표하기 전까지 ‘다산(多産)작가’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무서운 집필활동을 보여주었다. “20년 침묵개고 창작욕 불태우는 40대 신인”(한겨레신문)이라고 표현했던 마스크는 그를 몇년 지나지 않아 ‘중견작가’로 소개하고 있다. 올해 유순하씨가 쓴 소설은 세 권. 「희망의 혁명」(열린세상), 「여자는 슬프다」(민음사), 「산 너머 강」(고려원)이 그것이다. 유순하씨는 또 「한 몽상가의 여자론」(문예출판사)을 펴내 여성운동가와 단체·학계에 파문을 던져 주었다.

“한 몽상가의 여자론」에 거론된 사람들과는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운동’에 관계되는 여러 단체나 학계와의 대화는 몇번 있었습니디. ‘여성운동’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 주장에 등

■ 십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시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택의 송사(宋史)까지 18가지의 정사를 원나라 때 증신지가 십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퉁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고우영 만화 십팔사략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뛰어난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깊이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가: 5,000원(각권)

총 10권의 고퉁영 대하 만화소설-만화 십팔사략

- 1 심황오제에서 서주(西周)까지 6 후한(後漢)시대
- 2 춘추(春秋)시대 7 삼국(三國)시대
- 3 전국(戰國)시대 8 남북조(南北朝)시대
- 4 시황제(始皇帝)의 천하통일 9 당(唐)의 융망
- 5 칠우(項羽)와 유방(劉邦) 10 북송(北宋)·남송(南宋)시대

총10권 중 ① ② ③권은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 861-4818

감을 얻기도 했지만 저와 다른 의견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소재만 달리할 뿐 사회 모순구조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삶을 그리려는 주제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유순하씨는 12월에 또 한편의 책을 내놓는다. ‘한 몽상가의 기업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기업의 폐부를 향해 날아갈 「삼성, 신화는 없다」(고려원)가 그것이다. 직장생활에 익숙해진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오후 서너시까지 글을 쓴다고 한다.

글을 많이 쓰기로는 소설가 고원정씨를 빼놓을 수 없다. 여의도에 작업실을 따로 마련하고 인천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고원정씨는 올해 「바다로 간 먼 길」(문학동네)을 출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본 연재물’인 「대한제국 일본침략사」(현암사)를 2월부터 연재하고 있다. 또 두 일간지에 매일 소설을 연재하고 있기도 하다.

“출근하고 곧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밥먹는 시간이 긴 편입니다. 보통 한달에 1천매 가량 쓰고 있습니다.”

전공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관심

올해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른 공지영씨도 세권의 책을 올해 독자들에게 내보였다. 「인간에 대한 예의」(창작과비평사), 「고등어」(웅진)라는 소설집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미미의 일기」(현양출판) 등 ‘63세대’의 진면목을 과시한 공지영씨는 과작을 하지 않



차하순씨



신용하씨



고원정씨

는 편이다. 작품 구상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머리 속에 떠오른 구상은 허투루에 끝내버리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고은씨



안경환씨



공지영씨

법학자이면서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안경환 교수(서울대 사법학)는 ‘시인이 본 법’이라는 주제로 시집 「뮤즈와 디케」(교

육과학사)를 엮었다. 안 교수는 또 「이야기 한마당」(철학과현실사)을 펴내면서, “학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변호사가 승소했다고 자축연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스운 일”이라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다. 이유인즉, 지난 9월 발족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편 이상의 저작물을 올해 남겼다. 평론집 「이문열」을 쓰고, 「탈춤의 미학」(민음사)으로 「출판저널」에 ‘탈춤연구에 대한 논쟁’을 제공한 김옥동 교수(서강대 영문학)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또 정치가인 자신의 삶과 정견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김영사) 「나의 길 나의 사상」(한길사) 두 권에 담은 김대중씨(정치인), 「동학이야기」와 시집 「중심의 괴로움」을 술에서 펴낸 김지하씨(시인) 등 특이하게 주목됐던 저작자들도 많았다.

올해의 다작 저자들을 찾으면 이밖에도 많을 것이고 분야도 각기 다를 것이지만, 결코 다르지 않은 공통점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독서량이 그들의 글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성수 기자

책임의 원칙 :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한스 요나스 지음 / 이진우 옮김 / 384면 / 9,000원

한스 요나스가 지구의 종말이라는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 상황에 대해 고찰한 환경 철학자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기존의 전통윤리학으로는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책임의 명법”을 제시한다.

바실리 칸딘스키 예술론 예술과 느낌

막스 빌 엮음 / 조정옥 옮김 / 256면 / 6,000원

추상 회화의 대가로 꼽히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예술과 예술론에 대한 시론을 펼친 책이다. 칸딘스키 자신이 직접 서술한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정통적인 논고들을 통해 실제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제1권 오성에 관하여

데이비드 흄 지음 / 이준호 옮김 / 336면 / 8,500원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완역된 근대 경험론의 대표적 철학자 흄의 주저이다. 인상과 관념을 구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공간과 시간 관념, 인과성의 문제, 고대 철학과 근대 철학에 대한 고찰 등을 다루고 있다.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C.A. 반 퍼슨 지음 / 강영안 옮김 / 320면 / 9,000원

이 책은 문화를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정보사회, 일과 여가, 소비 사회, 기술과 윤리 등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미래의 문화를 책임있게 구상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지도를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